대행 선사 '뜻으로 푼 경전', 어떤 의미 가졌나

최원섭 연구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고찰

대행 선사 '뜻으로 푼' 경전 번역
"佛法을 시대 맞게 이야기" 원칙
원문 의미 중시한 '주석적인 의역'
"'뜻으로 푼 화엄경' 발간 고대해"

안양=신중일 기자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뜻으로 푼 불교 경전 번역의 의미와 특징을 고찰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0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 대행의 경전 번역' 주제 발표를 통해 대행 선사의 경전 번역의 특징과 의의를 살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1987년 간행한 〈신행요전〉을 통해 〈뜻으로 푼 천수경〉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유통시켰고, 1999년 〈뜻으로 푼 금강경〉을 발간했다.

직역 위주의 한글번역이 주류였던 시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경전 번역은 큰 파장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대행 선사가 '뜻으로 푼' 경전 번역을 지속한 이유는 선사가 대중에게 불교를 전하는 데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시던 법을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맞게 이야기하라(1989년)"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이 경전 번역에서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뜻으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게 최 연구원의 주장이다. 최 연구원은 "경전 번역은 대행 선사에게는 한문 원전의 글자보다 그 글자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했다"며 "애초에 대행 선사에게 번역이란 곧 의역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금강경〉을 32분과를 나누는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분과의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 밝힌다.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은 '안과 밖이 둘이 아닌 행이 아니라면 묘행과 중용이 아니니라'로, '제10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은 '둘이 아닌 공심, 즉 한자리인 것이니'로 번역한다.

최 연구원은 "이 같은 주석적 번역 방식은 글자 하나로도 함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한문을 소리 위주의 언어인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한 대행 선사의 번역 방식을 '주석적인 의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0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 대행의 경전 번역'을 발표하는 모습.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미완으로 남겨진 〈뜻으로 푼 화엄경〉의 발간을 제안했다. 대행 선사는 생전 〈화엄경〉을 70% 정도 풀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화엄경〉이 발간된다면 한국불교 주요 대강백에 이어 〈화엄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최초의 비구니스님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김치온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연구교수가 '법보(法寶)의 일체중생 불성설과 혜소(慧沼)의 반박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 이날 김 교수는 발표 논문을 통해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법보(627~705) 스님과 '중생마다 종성이 다르다'는 혜소(651~714) 스님의 논쟁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회의 좌장은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맡았으며, 논평자로는 박재용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참여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여섯 번째로 대구지원장 혜공 스님이 대구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에서 대행 선사의 경전 번역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신도들이 의미도 모르면서 어려운 한자로 된 경전을 독송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면서 "그래서 선사께서는 경전을 누구나 다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원을 세우고 경전을 번역하셨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지금 우리 사부대중은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매일 예불 시간에 〈천수경〉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경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마음 안으로 다들어가게끔 하고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게 하는 선사의 뜻에 따라 선원 대중은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희석될까 하는 염려도 갖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정진해 수행력을 높여서 가는 것이 세상에 좋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발표회에 참여한 대중은 어려운 공부도 마다 않는 경지에 있다. 마지막까지 발표를 잘 듣고 공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주사, 보물 품은 성보박물관 개관

9월 24일, 유물 총 66점 전시
198억 원 투입, 3년여 간 불사
지상 2층 · 지하 1층 규모 조성
성보 체계 · 효율적 관리 나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4일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가 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성보박물관을 개관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4일 '법주사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법주사는 지난 2020년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보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설계를 거쳐 2021년 11월 착공해 3년여 공사를 통해 개관했다.

총 공사비가 198억 원이 투입된 대작불사인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연면적만 3125㎡에 달한다. 박물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장고, 전시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됐다.

법주사 성보박물관에는 보물 제1259호 '법주사 괘불탱', 보물 제848호 '법주사 신법천문도병풍', 보물 제1858호 '법주사 동종' 등 보물 3점과 '법주사 선조대왕 어필 병풍', '법주사 가경구년명 동종' 등 충청북도 문화유산 2점을 포함해 총 66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아울러 최근 폐관한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693종 843점의 유물도 법주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 함께 전시·보관한다. 또한 법주사 괘불탱은 높이 14.5m, 폭 6.5m 크기로 179kg에 달하는 무게로 파손 위험이 있어 원본 크기로 디지털 빔을 통해 구현한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법주사는 국보 3점과 보물 15점 등 많은 성보를 간직한 사찰이다. 그동안 성보박물관이 없어 성보의 보존·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관을 계기로 불교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축사에서 "법주사는 성보사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성보를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사찰"이라며 "성보박물관 개관을 통해 다양한 성보를 보존·관리하고 전시함으로써 지역민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전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각연 스님, 각진 스님, 석중 스님, 설몽 스님, 현진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연경희 법주사 신도회장, 신학균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장, 송수헌 충북불교단체협의회장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정선용 충북행정부지사,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의장 및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숏폼 영상 공모전

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총 63명 선정, 상금 700만원
'삼소식' 주제 가산점 부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찰음식 숏폼(Short Form)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식습관 인식 제고·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사찰음식과 관련한 자유주제이며, '사찰음식 삼소식' 주제로 응모 시 심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삼소식은 즐겁게 먹기(笑食), 적게 먹기(小食), 채소 먹기(蔬食)이다.

참가자들은 SNS(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작품을 업로드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등 필수 해시태그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공모전 홈페이지에 SNS 링크와 작품 원본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작품 출품 규격은 60초 이내 세로형의 숏폼 영상이다. 공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4인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품작 수는 개인(팀) 당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심사는 11월 초 1차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에 통과한 참가자는 2차 오프라인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7명, 장려상 10명, 인기상 40명으로 총 63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총 상금은 700만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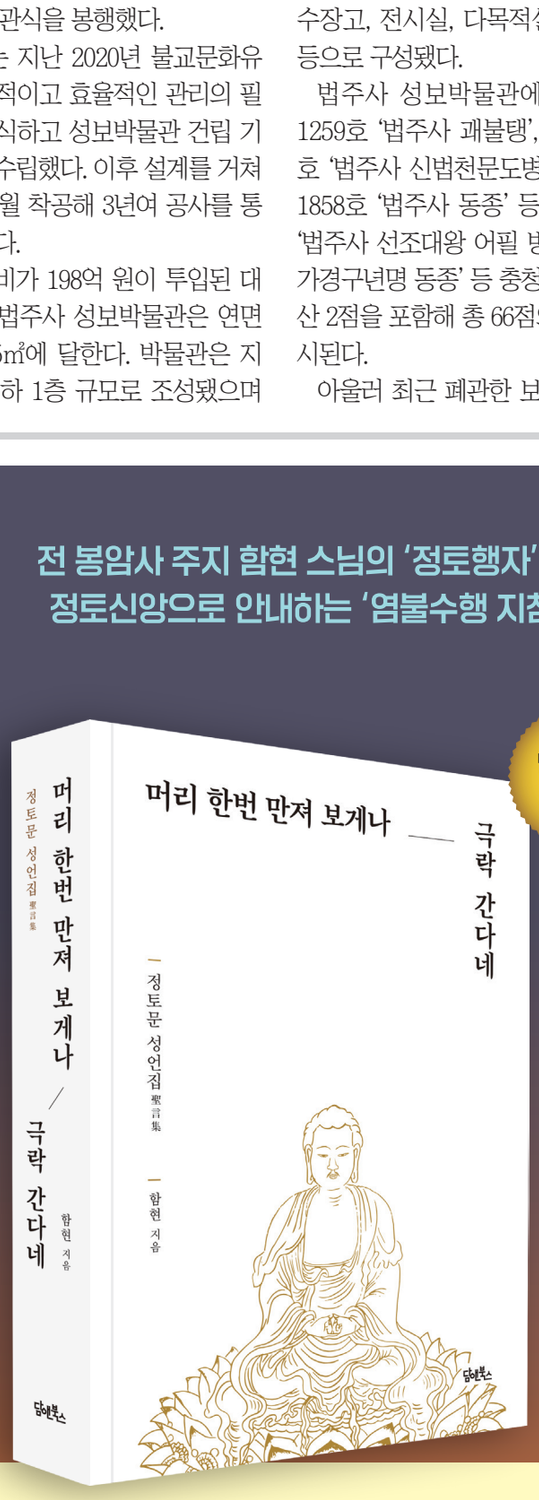
접수 방법 및 양식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buddhism.com) 또는 사찰음식 숏폼 영상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http://www.templefoodcont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기자

전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의 '정토행자' 공표
정토신앙으로 안내하는 '염불수행 지침서'

정토문 성언집(聖言集)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 극락 간다네



함현 지음 | 150x210 | 432쪽 | 18,000원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_본문 중에서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 도솔 함현 兜率 涵玄 |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앤북스